

병원

 입원한

 비자해

 노인군과

 고의적

 자해

 노인군의

 사망

 영향

 요인

Factors affecting the in-hospital death of the non-intentional self-harm elderly group

 and the intentional self-harm elderly group

김상미¹, 전해상²

¹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조교수, ²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연구

 필요성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자살률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노인 자살의 경우 갑작스럽게 결정하기 보다는 오랜 기간 겪은 삶의 고통에 대한 마지막 선택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또한 노인의 경우 자살 의도를 보다 단호하게 실행하며 그 자살 의도가 사전에 행위로 잘 드러나지 않음. 자살 고위험군 노인집단을 예측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노인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연구

 주제

본 연구는 병원에 입원한 비고의적자해 노인군과 고의적 자해 노인군의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자해 시도 노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의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음. 연구대상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입원 환자 중 65세 이상 100세 미만의 50,688건을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음. 고의적 자해 시도 후 입원은 외인 코드가 자해인 경우(X60-X84)로 정의하였고, 동반질환은 육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구분하였음. 환자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집단간 차이는 교차분석을 실시함. 사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로지스틱 회귀분석함. 통계프로그램 STATA 17.0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음

연구

 결과

 I

비자해 노인군은 여자가, 고의적 자해 노인군은 남자가 많았으며, 나이는 고의적 자해군인 경우 75.4세로 비자해 노인군 76.1세보다 낮았음. 정신적 질환의 경우 우울증, 조현병, 불안장애, 치매, 기타 신경계 질환 모두 고의적 자해군에서 비자해 노인군보다 환자 비율이 높았음. 육체적 질환의 경우 뇌혈관질환은 비자해 노인군이, 암과 전이암은 고의적 자해군의 비율이 높았음. 그리고 알코올 남용과 의존은 고의적 자해군의 비율이 높았음. 각각의 군에서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을 때 비자해 노인군은 성, 지불방법, 우울증, 불안장애, 기타 신경계질환, 급성심근경색, 뇌혈관질환, 당뇨병 합병증, 편(또는 반신)마비가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음. 고의적 자해군에서는 성, 지불방법, 우울증, 불안장애, 뇌혈관질환과 알코올 남용과 의존이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음

연구

 결과

 II

	비자해환자		자해환자		x^2	p	OR	p	95% CI	
	n	%	n	%						
Gender										
Male	16322	33.2	785	53.8	270.209	0.000	0.415	0.000	0.370	0.465
Female	32907	66.8	674	46.2						
Age	76.1	7.1	75.4	6.9	3.602	0.000	1.003	0.467	0.995	1.011
Aid payment										
No	43496	88.4	1353	92.7	26.675	0.000				
Yes	5733	11.6	106	7.3			1.214	0.000	1.157	1.274
Mental disease										
Depression	445	0.9	317	21.7	4100.000	0.000				
Schizophrenia	77	0.2	6	0.4	5.629	0.018	33.180	0.000	27.968	39.362
Anxiety Ds	185	0.4	58	4.0	384.812	0.000	1.443	0.472	0.532	3.916
Dementia	2024	4.1	70	4.8	1.686	0.194	7.615	0.000	5.275	10.994
Other	394	0.8	21	1.4	7.125	0.008	0.787	0.093	0.595	1.040
Physical disease							1.829	0.012	1.142	2.931
AMI	350	0.7	16	1.1	2.940	0.086	1.757	0.041	1.024	3.014
CHF	1080	2.2	30	2.1	0.125	0.723	0.930	0.726	0.621	1.393
PVD	278	0.6	6	0.4	0.599	0.439	0.574	0.237	0.229	1.441
CEVD	2473	5.0	52	3.6	6.379	0.012	0.578	0.001	0.424	0.788
COPD	1720	3.5	63	4.3	2.836	0.092	0.798	0.130	0.596	1.069
RD	200	0.4	4	0.3	0.617	0.432	0.604	0.368	0.202	1.810
PUD	535	1.1	21	1.4	1.624	0.203	0.871	0.592	0.526	1.442
Mild LD	854	1.7	32	2.2	1.735	0.188	0.877	0.523	0.585	1.313
Diabetes	6412	13.0	171	11.7	2.134	0.144	0.812	0.020	0.682	0.968
Diabetes Cx	745	1.5	13	0.9	3.725	0.054	0.737	0.044	0.547	0.991
HP/PAPL	623	1.3	11	0.8	3.002	0.083	0.628	0.005	0.452	0.871
RD	1281	2.6	26	1.8	3.794	0.051	0.811	0.057	0.654	1.006
Cancer	1349	2.7	70	4.8	22.046	0.000	1.117	0.178	0.951	1.312
M/S LD	97	0.2	2	0.1	0.261	0.609	0.929	0.764	0.575	1.501
Meta. Ca	332	0.7	23	1.6	16.578	0.000	1.038	0.439	0.944	1.141
Alcohol	150	0.3	38	2.6	202.825	0.000	3.254	0.000	2.071	5.112

Ds : disorders, Other : Other dx nervous system

 AMI : Acute myocardial infarction, CHF : Congestive heart failure

 PVD : Peripheral vascular disease, CEVD : Cerebral vascular accident

 COPD :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RD : Rheumatoid disease, PUD : Peptic ulcer

 LD : Liver disease, Cx : Complications

 HP/PAPL : Hemiplegia or Paraplegia, RD : Renal disease

 M/S LD : Moderate/Severe Liver disease

 Meta. Ca : Metastatic Cancer,

 Alcohol : Alcohol misuse and dependence

논의

노인의 자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자해에 따른 손상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육체적 요인을 대상으로 두 군을 비교하고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음. 의료기관은 자해를 시도한 환자가 방문하는 기관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망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